

2021년 도 제 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1년 9월 24일(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배 준 석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보고안건

<보고 제59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59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9월 1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주요 현안분석의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잘 선정하였으며 참고 박스(box)의 분석자료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체

계적으로 잘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이어서 여러 위원은 주요 이슈 중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임계수준이 추정 방식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기업부채 등의 경우 업종별, 규모별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시계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국내 기업투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투자가 부채비율 외에 장래 성장 가능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정부부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한 여러 위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운용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거시건전성정책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여러 위원은 상대적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청년층,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구조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각 취약계층의 소득수준, 자산축적 정도, 자산가격 및 신용위험 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

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지속

그러나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앞으로 금융불균형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금융완화조치 정상화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재정 정책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보완할 필요